

내 손 안에 연수구

「연수한마당」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송서비스 안내



모바일 연수한마당 구독 신청 방법

- 1 032-749-7402 전화 신청
-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신청
- 3 [http://www.yeonsu.go.kr/
publicity/sub/yard.asp](http://www.yeonsu.go.kr/publicity/sub/yard.asp) 또는
아래 QR 코드로 접속 후
'모바일 문자서비스 신청' 클릭!



모바일 문자서비스 신청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 749-7402

연수한마당

YEONSU HANMADANG



02

FEBRUARY
2020. Vol.286

구청소식지 '연수한마당'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군대 간 자녀에게 보내실 경우 - 성명, 부대주소, 계급, 전역예정일자)

연수한마당은 www.yeonsu.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연수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749-7402, dustnsk@korea.kr

청년^{연수}구

함께해요!
청년으로 함께 여는 연수구!

CONTENTS

03	OPEN 연수	젊음, 그 청춘을 노래하다
10	연수공간	초콜릿의 달콤한 문화를 공유하는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
14	연수사람	꿈은 정신을 담아서~ 이압!!
16	여기어때	온기와 향기가 머무는 드림 커피 전문점
18	역사 속의 연수	신도시 연수구의 탄생
20	연수 속 이야기	로봇을 사랑한 미술가
22	우리동네	동별 이슈
24	구청소식	구청 이슈
25	의정소식	의정 이슈
26	연수게시판	연수구 복지, 행정, 문화
30	연수 SNS	연수구의 거울은 신난다
32	건강마당	건강정보 및 보건소 소식
33	도서관마당	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
34	Yeonstargram	아기탄생축하 및 독자테마사진

ENGLISH

03	OPEN Yeonsu
18	Yeonsu in History
29	Info & event
31	Tip & Talk

연수한마당

2020. February + Vol. 286



발행처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발행일 2020년 1월 25일 발행인 연수구청장 편집인 부구청장
행정간행물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제호 캘리그라피 제공(재능기부) 서림(書林) 박은옥
취재 최유정, 박영희, 이경희, 도현수 사진 박혜림, 박영희, 이경희, 최유정, 도현수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음악을 사랑하고 끼와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인천연수대학가요제.' 학생들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구민들에게는 색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연수대학가요제를 통해 꿈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The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was created by talented college students with a passion for music. For the students, the festival is an opportunity to exhibit their musical talents and abilities and, for residents of Yeonsu-gu, to experience a new cultural program. Let us listen to stories of the youths moving one step closer to their dreams through the festival.

점음, 그 청춘을 노래하다

Youth, Singing it in Songs

Third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제3회 인천연수대학가요제



꿈의 무대에 도전하라!

지난 11월 27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콘서트홀에서 '제3회 인천연수대학가요제' 결선 무대가 열렸다.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무대는 지난 9월부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의 팀이 출전해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노라조, 공일오비, Moon 등 인기가수의 공연도 펼쳐져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의 무대는 경인방송을 통해 현장의 열기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EMBRACE THE CHALLENGE TO TAKE THE STAGE OF DREAMS!

On November 27, the final stage of 'the Third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was held at the IGC auditorium. The performance was attended by 10 teams selected from college students nationwide through the preliminary and final rounds since September 2019, showcasing their originality and skills to their fullest extent. Popular singers such as Norazo, 015B, and Moon also performed to add to the fun of the event. The performance was broadcasted live by iFM Kyung-in Broadcasting to vividly convey the atmosphere.

심사위원으로는 음악평론가 송명아, 공일오비 장호일, 재즈 보컬리스트 문혜원이 참여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예의 대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를 부른 애나밴드가 차지했다. 대상에게는 상금과 함께 연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연수구는 재능 있는 신인 인재를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장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천연수대학가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Music critic Song Myung-ah, 015B Jang Ho-il, and jazz vocalist Moon Hye-won participated as the judges. Through a fair process, Aina Band, who sang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it," received the grand prize. The winner got to take another step closer to their dream as the band was invited to perform on a cultural event hosted by Yeonsu-gu, along with cash prizes. Yeonsu-gu will continue to explore new talents and share various cultural experiences with residents by hosting 'the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TIP. 제3회 인천연수대학가요제 수상자

제3회 인천연수대학가요제

대상 : 애나밴드_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금상 : 신소리_서울

은상 : 남바원_서울

동상 : 힘내자_안성

인기상 : 파고_군산

TIP. Winner of the Third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The Third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Grand Prize: Aina Band_Paju Campus,

Doowon Technical University

Gold Prize: Shin so-I_Seoul

Silver Prize: Nambawon_Seoul

Bronze Prize: Himnaeja_Anseong

Popularity Award: Fargo_Gunsan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제3회 인천연수대학가요제 대상 ‘애나밴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인천연수대학가요제’, 뜨거웠던 축제는 마무리되고 무대는 불이 꺼졌다. 그러나 대학가요제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애나밴드 이야기를 들어보자.

THEIR NEVER-ENDING STORY

“Aina Band,” the winner of ‘the Third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The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came to a successful close. With the heated festival ended and the stage lights off now, the stories of the participant students are still continuing. Let’s listen to the story of Aina Band, who won the grand prize.



보컬, 건반 2명, 드럼, 기타로 구성된 애나밴드. 두원공과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이뤄진 이 밴드는 매력적인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애나밴드는 리더이자 보컬을 담당하는 이애나씨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적인 교류를 나누고, 졸업 전 청춘을 마음껏 빛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를 영입하기 시작한다. 먼저 피아노를 잘 치는 지용을 납치하듯 끌어들었고, 파워풀한 드럼 연주로 밴드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종찬에게 도움을 청했다. 리드미컬한 기타 연주를 자랑하는 건과 부드러운듯 세심하게 건반을 누르는 은비까지 더해지면서 각자의 매력이 섞인 애나밴드가 탄생하게 된다.

Composed of one vocalist, two keyboard players, a drummer, and a guitarist, who are all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t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ina Band is creating beautiful music. Aina Band was organized by Lee aina, the leader and vocalist. With the desire to share musical exchanges with her friends and brighten up her life before graduation, Lee started to bring in outstanding performers. First, she pulled into the band Ji-yong, who expertly plays the piano, and asked for help from Jong-chan for a powerful drum sound to make the band more attractive. With the addition of rhythmic guitar performances by Geon and the gentle, meticulous keyboard-playing of Eun-bi, Aina Band has made a splash in the world with each member’s attractive charms.

다양한 매력을 지닌 ‘애나밴드’

THE CHARMING “AINA BAND” IN DIVERSE ASPECTS



결성된 이후 애나밴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며 다양각색의 음악을 연습한다. 좋은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애나밴드의 노력은 학교에서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인천연수대학가요제’를 추천했다. 자신들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애나밴드는 망설임 없이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참가할 곡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던 도중, 학교 선배에게 선물 받은 자작곡 ‘아무리 생각해봐도’를 선곡했다. 밝은 멜로디에 중독성 있는 후렴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애나밴드. 기존의 곡을 자신들의 악기 구성에 맞게 편곡하여 그들의 스타일을 듬뿍 담아낸다. 쟁쟁한 참가팀들 속에서 그들의 노래와 연주 실력은 행사장에 있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천연수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Once the team was organized, Aina Band practiced a variety of music through coordination with each member. Aina Band’s desire for good music by the school, who recommended participation in ‘the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Believing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show their music to others, they decided to join without hesitation. As they considered songs to perform, they finally selected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you,’ composed as a gift by their senior at school. Aina Band thought that bright melodies and addictive hooks could appeal to their audience. The song was arranged based on their instruments to capture their style. In the competition with other excellent participating teams, their vocals and instrumentals captured the hearts of the audience at the Incheon Yeonsu College Music Festival and won them the grand prize.

대상에게 주어지는 상금과 연수구가 진행하는 문화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로 애나밴드는 자신들의 꿈에 더 다가간다. 애나밴드는 좋은 악기를 구매하거나 저금하는 등 더 나은 음악 활동을 위해 상금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연수구의 지원으로 문화공원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식 무대에도 올랐다.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 애나밴드는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며 행사장 분위기를 띄웠다.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멋지게 공연을 마무리한 애나밴드는 앞으로도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무대를 보여주길 원한다.

With cash prizes and the opportunity to perform at cultural events conducted by Yeonsu-gu as an award to the grand prize winner, Aina Band took one step closer to their dreams. They used the prize money for better musical activities, such as buying musical instruments. Also, on December 21, 2019, with the support of Yeonsu-gu, the band took the stage for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utdoor skating rink in Culture Park. To highlight the special opportunity, Aina Band boasted of their skills to create an extraordinary excitement all over the rink. In thanks to their received attention and recognition, Aina Band hopes to show their performances to more people by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함께 만들어 가는 ‘애나밴드’

“AINA BAND”, GROWING TOGETHER



애나밴드 멤버 소개



보컬 : 이애나(23살)

+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원래는 춤 전공이었는데 발목도 좋지 않고 평발이 심해서 춤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도중 보컬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음악적 영감을 얻는 포인트

“저는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드라마를 보고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 지금 추천하는 노래, 이유

〈다섯손가락 - 풍선〉 예쁜 가사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반1 : 정지용(26살)

+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피아노 치던 연주자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2년간의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았어요.”

+ 음악적 영감을 얻는 포인트

“책을 읽거나 음주를 할 때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 지금 추천하는 노래, 이유

〈Bill withers - Just the Two of Us〉 추운 날씨에 포근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건반2 : 김은비(23살)

+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재밌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해봤는데 연주하고 곡을 쓰는 게 떠올랐어요.”

+ 음악적 영감을 얻는 포인트

“실제로 연애를 하다가 얻는 경험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추천하는 노래, 이유

〈세븐틴 - 포옹〉 우울할 때 들으면 위로가 되는 가사가 예쁜 노래입니다.



드럼 : 정종찬(24살)

+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릴 때부터 드럼을 배웠고, 밴드 음악과 록 음악에 빠진 뒤에는 드럼이 더 좋아졌습니다. 드러머를 동경하다 보니 어느새 음악을 하고 있더군요.”

+ 음악적 영감을 얻는 포인트

“술 한잔하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제 기분에 따라 쓰기도 하고요”

+ 지금 추천하는 노래, 이유

〈엑시트텐(Exit10) - Ego〉 사회비판의 가사와 시원한 보컬, 락 사운드 등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기타 : 진건(27살)

+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디선가 기타를 치면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타만 가르쳐주셔서요. 그렇게 치다 보니 기타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 음악적 영감을 얻는 포인트

“작업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이 곡이 되는 것 같아요.”

+ 지금 추천하는 노래, 이유

〈Tom misch - Lost in Paris〉 기타 선율이 예뻐서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에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애나밴드가 추구하는 음악은 다양하다. 각자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에 밝은 음악부터 락, 밴드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한다. 이제 음악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면서 자신들에게 걸맞은 색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애나밴드의 멤버들은 밴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애나, 애나밴드에서만 볼 수 있는 음악들을 찾아내 들려주고 싶은 종찬, 사람들이 웃게 만들 수 있는 연주하고 싶은 지용, 자신의 음악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은비,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건.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이다. 그 미래를 위해 애나밴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것이다.

Aina Band pursues a variety of music. Since each member's favorite music style and desires differ, they work across a variety of genres, from bright music to rock and band music. Now, they are about to start their own music, try different genres, and find their own color to achieve their dreams. There is Aina who wants to share her songs with many people, Jongchan who wants music that can only be played by Aina Band, Ji-yong who wants to make people smile, and Eun-bi who hopes to transmit energy with their own music. They all hope for more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music with a variety of audience and ultimately make music that people can sing, play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or that future, Aina Band will continue to take on new challenges.

애나밴드 자작곡 소개

‘아무리 생각해봐도’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you’

작사·작곡 : 이수빈(두원공과대학교 13학번)

Written [music & lyrics] by: Lee Soo-bin (Doowon Technical University)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란 남잘 만난건
다신볼수 없는듯한 꿈을 꾸거야 one two one two three yeah

오 아직까지도 잘몰라 이느낌
설레이지만 불안한 마음도 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 꿈속에서만 만났던
멋진 남자가 내앞에 서있는거야
혹 꿈을 꾸고 있는걸까 내가될 잘못 먹은걸까
내게 이런 일이 생길걸 누가 믿어줄까
오 아직까지도 잘몰라 이느낌
설레이지만 불안한 마음도 난

참 오래 걸렸나봐요 사랑을 말로 하기엔 표현이 잘 안돼요
내 맘이 보인다면꼭 잡아요 한참 바랬던 이순간이왔어요
내 곁에 그댈보아요 가만히 떨린 마음을 숨길수가 없어요
내 손을 꼭잡아줘요 그대도 나와 같기를 간절하게 원해요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4)

참 오래 걸렸나봐요 사랑을 말로 하기엔 표현이 잘 안돼요
내 맘이 보인다면꼭 잡아요 한참 바랬던 이순간이왔어요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2)

It must have taken so long. I can't express myself to say love.
If you can see my heart, hold on to it. The moment I longed for
deeply has come to us.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2월이면 누구라도 초콜릿의 달콤함을 느껴보고 싶어진다. 사랑과 행운의 메신저로 손에 손을 오가는 초콜릿은 차와 음료, 제과와 공예 분야까지 진한 향이 번지고 있다. 연수구 안에도 지난 늦여름부터 초콜릿의 모든 것을 품은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이 행복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주고 있다.

글 최유정 연수한마당 기자
사진 박혜림 연수한마당 기자

초콜릿의 달콤한 문화를 공유하는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

초콜릿의 깊은 역사부터
달콤한 체험 프로그램,
수제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곳.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 이용 안내

시간 매일 오전 7시 30분~오후 10시
요금 한시적 무료(~2월 29일까지)
주소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227-10
문의 ☎ 831-9922



오랜 역사부터 예술 작품까지 초콜릿과 관련된 모든 것



유럽풍 분위기의 3층 건물 가득 초콜릿 이야기가 채워진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눈에 띄는 규모의 초콜릿 박물관이다. 옛 송도인 송도유원지에 자리한 이곳에서 만나는 건 단지 초콜릿만이 아니다. 초콜릿의 역사를 품은 유물과 벽화, 도자기까지 세계의 초콜릿 역사를 보여주며 다양한 체험수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 경험을 공유한다.

안경테와 모자까지 초콜릿색을 고른 이미숙 관장의 섬세함처럼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은 틈새 공간 곳곳에까지 초콜릿 문화가 느껴진다. 입구에도 초콜릿 토끼 두 마리가 앉아있고 계단 옆 벽에도 초콜릿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장식했다. 박물관인 2층에서는 초콜릿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유물, 벽화, 시청각 자료로 다양하게 만나게 된다. 다섯 구역으로 테마를 나누어 카카오나무의 독특한 재배환경과 종류를 알려주고 카카오 효시 국가인 멕시코의 문물, 유럽으로 전파된 초콜릿의 경로를 안내한다. 초콜릿을 실어 나른 배, 초콜릿을 담던 주둥이 짧은 주전자와 컵, 〈초콜릿 소녀〉 벽화처럼 진귀한 전시물들이

가득하다. 매일 카카오 음료 50잔을 마셨다는 왕의 이야기에 놀라고, 카카오나무 주위엔 왜 뱀이 있을까 궁금증도 생긴다. 어떤 것부터 먹을까 설레던 상자 속 초콜릿 조각들을 쿠션 모형으로 똑같이 만들어 꾸민 벽은 아이들을 들뜨게 하는 포토존이다. 이렇게 독특하고 귀한 전시물들은 이 관장이 각 나라를 여행하고 공부하며 구해온 소장품이다. 20대 때 유럽에서 온 여행객이 선물한 예쁜 초콜릿에 반한 순간부터 초콜릿과 관련된 모든 것에 끌렸다. 애정과 호기심으로 구하고 찾아낸 물품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모여 이제는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이라는 무대를 의미 있게 채우고 있다.

달콤한 초콜릿 향과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초콜릿이 담긴 여러 문화들이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초콜릿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에서는 전시 관람만 하고 돌아서기엔 아쉽다. 1세부터 8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3층 체험학습실에서 초콜릿을 직접 만들고 디자인하는 체험수업을 즐기는 중이다. 교육부 ‘꿈·길·진로체험처’로도 지정되어 초콜릿 요리사인 ‘쇼콜라 띠에’라는 꿈을 소개하는 역할도 한다. 이미숙 관장은 “나만의 초콜릿을 만들며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와서 누리고 즐기는 공간으로 더 열심히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한다.

박물관을 둘러본 후 여운을 즐기기에 좋은 1층 카페는 또 하나의 전시 공간이다. 오븐에 볶은 카카오로 끓인 차, 구입 가능한 수제초콜릿과 ‘발렌타인 초콜릿’인 생초콜릿, 모형 카카오나무와 중세기사 조형물까지 한참을 둘러본 후에야 자리에 앉게 된다. 커플과 가족이 오붓하게 체험 시간을 갖는 장소이기도 하다.

인천시 관광지로도 지정된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있다. 한 가족이라도 소중히 맞이하는 송도초콜릿문화박물관은 누구라도 달콤하게 초콜릿 문화를 감상하고 꿈을 꾸는 공간으로 열려있다.





‘노영 태권도관장’의 태권도에 실은 마음 나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만큼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지정된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이다. 바른 정신을 품고 몸을 다스리는 심신수련운동 ‘태권도.’

수련으로 체득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정신을 담아 훈훈한 이웃사랑까지 이어가는 태권도장이 있다. 태권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 육련동의 겨울은 봄처럼 따뜻하다.

글 사진 박영희 연수한마당 기자



♥️ 곧은 정신을 담아서~ 이얍!!

건강한 정신으로 실천하는 ‘태. 권. 도.’

육련동 상가 4층에 위치한 ‘경희대 태권나라 태권도장 (이하, 도장)’에는 첫 계단부터 도장 입구에 들어가는 끝 계단까지 수련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어서와 보고 싶었어.’, ‘우리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2010년 6월 개관한 태권도장은 6세부터 중학생까지의 수련생들이 태권도 정신 속에서 바른 인성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며 채워가는 공간이다.

노영 관장(47세)은 “좋은 교육은 건강한 정신을 통해 행동과 생각이 바뀌게 하는 교육입니다. 품세와 겨루기 뿐 아니라 생활체육과 체력단련을 통해 마음교육과 정신교육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관장은 초롱초롱한 수련생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시작하는 예의 바르고 절제된 동작들을 통해 태권도의 곧은 정신을 몸과 마음에 심어준다. 가르침을 따라 수련생들의 건강한 정신을 담은 찰랑찰랑한 기합소리가 체육관 안을 휘감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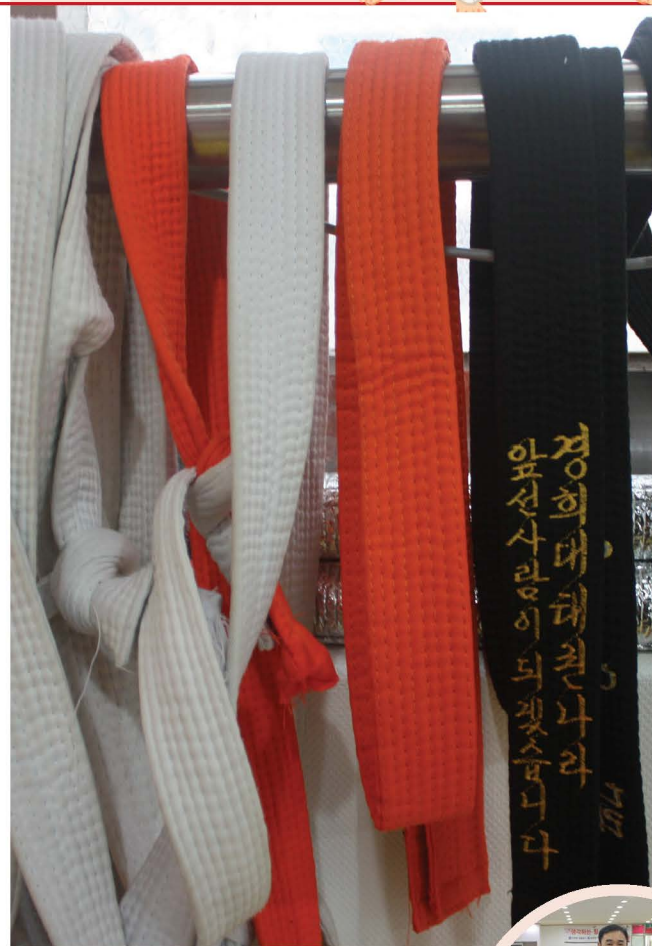
벽 한쪽에는 ‘예의바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쓴 ‘관장의 지도 방침’ 액자가 수련생들을 향해 걸려있다.

태권도는 무기를 지니지 않고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과 방어하는 무도로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마음을 길러준다.



“따뜻한 나눔이 태권도 정신입니다.”

노 관장은 수련생들에게 학교와 가정 또는 친구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교육을 한다. 특히, 강조하는 마음교육 중 하나는 나눔 실천이다.



몸과 마음이 더욱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 관장을 비롯한 수련생과 학부모가 한마음 한뜻으로 라면을 모아 육련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한다. 올겨울 4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라면 나눔’은 해마다 수가 늘어서 지난 12월에는 1,000여 개를 전달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놓치고 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통해 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나눔 교육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고자 원생과 학부모가 함께 동참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서 배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수련생들을 바라본다.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민족 고유의 얼과 사상이 녹아든 태권도 정신을 통해 훈훈한 정과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관장 및 수련생과 학부모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노영 관장이 태권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앞에서 보여주는 동작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학생들.
도장 앞은 아이들의
기합소리로 가득해진다.





여기어때.

Search

&

Embrace

온기와 향기가 머무는 드립 커피 전문점



따스한 온기와 향기가 가득 담긴 드립 커피 전문점. 정성을 담아 주문과 함께 나만을 위한 커피를 만든다. 부드럽지만 입안 가득 안겨드는 진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에 빠져보자.

글 사진 이경희 연수한마당 기자



주소 인천 연수구 청량로46번길 50
문의 ☎ 070-4146-0093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차오라비타' 카페에 들어서기 전부터 코끝을 자극하는 커피 향이 그윽하게 나온다. 드립 커피를 제공하는 차오라비타는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피가 별로라면 그것은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취향에 맞지 않는 커피라는 사장님의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차오라비타에서는 핸드드립을 주문하신 손님에게는 하우스 블렌딩 제품 아메리카를 리필하여, 비교해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커피의 맛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라면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한다. 교육평가기관과 MOU를 맺고 있기도 한 차오라비타는 바리스타 실무 자격증 시험장소이기도 하다. 중·고등학생들과 공무원들 등 커피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일요일에는 핸드드립 무료교육도 운영한다.

'차오라비타'



커피잔에도 마음이 담긴

내게 맞는 커피를 찾아주는

'웨일즈 빈'

드립 커피 전문점인 '웨일즈 빈'은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한쪽에는 사장님이 집필한 커피와 관련된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다. 진한 커피향이 풍기는 웨일즈 빈의 특별한 점은 선반 위에 정갈하게 놓인 제각각의 커피잔들이다. 푸른 커피잔, 분홍빛 커피잔, 우산이 그려진 잔 등 다양각색의 잔들. 이천 도자기 공방에서 도예작가가 직접 빚은 것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커피는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웨일즈 빈은 커피가 담긴 잔을 미리 예열한다.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하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사장님과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그때 설명해주는 것이 물방울 드립인데, 물방울처럼 세심하게 조절하면서 커피를 내리면 진하지만 쓴맛, 잡맛 없는 핸드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문의 ☎ 010-5357-3265

YEONSU IN HISTORY

#11

신도시 연수구의 탄생



논밭과 들판, 작은 산, 갯벌 등이 메워지고 도시 인프라가 들어선 연수. 1995년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탄생한 신도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까지 성장시키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BIRTH OF A NEW CITY, YEONSU-GU

Yeonsu, filled with fields, paddies, small mountains, and mudflats, and also the site of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new city of Yeonsu-gu, which was born in 1995 from Nam-gu, has grown to Songdo International City and has been expanding to the world.

오늘날 연수가 되기까지

1987년 연수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대량보급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내세우며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선학동 일대의 땅을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하면서다. 조성된 택지 위에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1991년 선학동부터 아파트 입주가 진행됐다. 학교, 복지관 등 도시기반 시설들이 점차 갖춰지면서 신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1994년에는 이곳을 포함한 남구의 인구가 58만 명에 육박했다. 인천시는 남구에서 새로운 구인 '연수구'를 분구하여 신설한다. 1995년 3월 1일 신도시 연수구가 탄생했다. 처음에는 5개의 법정동 및 8개의 행정동을 관할 구역으로 삼았던 연수구는 이후 인구 증가로 동이 나뉘거나 신설되면서 현재는 6개의 법정동과 14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YEONSU, FROM PAST TO PRESENT

In 1987, the appearance of Yeonsu-gu began to change completely with the aim to guarantee an ample supply of housing for ordinary citizens and an organized urban development plan. The plan started with the project to develop the land around Yeonsu-dong, Cheonghak-dong, Dongchun-dong, and Seonhak-dong into residential areas. Apartments were built on these sites and became occupied in 1991 starting with Sunhak-dong. As schools, welfare centers, and other urban infrastructures were established one after another, the former rural areas completely transformed into the new cities. The population grew rapidly; in 1994, when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was completed, the population of Nam-gu, including this area, reached nearly 580,000. The city of Incheon has separated the developed area from Nam-gu to create a new district, Yeonsu-gu. On March 1, 1995, the southern district of Munhaksan Mountain was separated from Nam-gu, and Yeonsu-gu, a new city, was born. Yeonsu-gu, which initially had five legal dong and eight administrative dong in its administration, has seen increases in the number of people into new or divided dong, and has six legal dong and 14 administrative dong in its administration.

송도, 연수의 글로벌 도약지로

동춘동 일원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간척지인 송도. 송도는 연수 신도시 택지조성사업이 한창이던 1989년에 계획되었으며, 1994년 9월 매립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여러 시설이 들어선 송도는 2003년 영종, 청라와 함께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개발과 유치가 진행되면서 명칭이 송도국제도시로 변경됐다. 송도국제都市는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의 비즈니스 IT·BT 방향으로 개발된다.

이에 송도에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등 15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근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이 풍부한 자족도시의 면모를 선보인다.

SONGDO, THE SPRINGBOARD OF YEONSU INTO THE WORLD

Songdo is a land created by reclaiming tide flats in Dongchun-dong, Yeonsu-gu. Songdo's first phase for urban development was in 1989, whe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was in full swing. Since the landfill plan was officially approved, the landfill construction began in September 1994. Songdo, which had been transformed from tide flats into an area with facilities, was designated as the first Economic Free Zone in Korea with Yeongjong and Cheongna in 2003. As development and attraction progressed, the name was changed to Songdo International City. Consistent with this name, Songdo has been developed focusing on business IT·BT, such as the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Bio Complex, and High-tech Industrial Cluster. Songdo has more than 1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global corporations, the Green Climate Fund Secretariat,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OSD). In addition, as the transporta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improved, it became a self-sufficient city rich in residential, business, and commercial facilities.

로봇을 사랑한 미술가

테마파크부터 화성 우주기지,
로봇 공작의 공연, 로봇 축구 등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들.
박금희 이사는 상상 속 로봇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교육용 로봇과 자기주도형 코딩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를 소개한다.

+ ‘연수스토리’는 구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나누는 구민 소통 사업입니다. ‘연수스토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의 ☎ 마을자치과 749-7230



CH.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연수구에서 교육용 로봇 코딩 회사를 운영하는 박금희입니다. 저는 원래 교육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리거나 편집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회사가 멀어져 다른 일을 찾게 된 것이지요.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자회로를 납땜하여 작은 장난감들을 자주 만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조언과 도움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고 쉬운 상품을 작업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제품을 향한 욕심이 생겼고, 점차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을 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CH. 첫 작품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다

첫 작품 ‘해오름 새소리’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햇빛을 비추면 새소리가 나는 키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과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지요. 과학 키드로 성공적인 성과를 얻어 1년에 10만 개씩 팔렸습니다. 하지만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실습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라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디테일하면서도 침착할 수 있는 내용, 아이들을 더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 등을 넣었어요. 그 밖에도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동영상상을 제공하는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CH. 아이들을 위한 꿈을 키우다

저는 과거에 했던 교육과 관련된 경험으로 교과서에 교사 지침서가 있듯 코딩 제품에도 지침서가 있어야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부터 교육의 품질까지 고려했기에 저와 회사는 끝없이 성장하게 됐지요. 저희 회사는 수상 경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으며, 해외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체험관에 참여했습니다. 현지의 뜨거운 반응으로 인도네시아 내에 53개의 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이지요. 저는 어디서든지 저희 제품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로봇 코딩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동네

66

누군가가 해야할 일을
먼저 시작하는 연수의 소식이
내일의 발전을 만듭니다.
살기 좋은 도시, 연수구가 되기
위해 언제나 구민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

송도동

연수구, 표지병 설치 등 올해 상반기 자전거도로 대대적 정비



연수구가 올 상반기 중 자전거도로표지병 설치공사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총 연장:122.6km) 중에서 노면 불량과 침하 구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현재 연수구에서 관리 중인 자전거도로는 개설 완료 후 구로 이관된 1~4공구, 5·7공구 122.6km 구간으로 경제청에서 조성 예정인 미개설 자전거도로(단절구간)는 관리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구는 정비를 위해 지난해 8월 송도국제도시 내 자전거도로에 대해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침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불합리 등 정비대상이 1천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우선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구간과 시설에 대해 노면 보수와 재포장 682m, 자전거도로 표지판 140곳 교체, 횡단도 노면표시 500곳 정비 등 1차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구는 올해도 미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26곳과 자전거 횡단도 730곳 등 정비대상 전체에 대해 본예산과 시 특별교부금 등 3억 원을 활용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송도 컨벤시아대로 일원 3.6km 구간에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노출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표지병 설치에 나선다.

원도심 지역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청능대로 일원 등 자전거도로 정비와 함께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인다. 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보험, 자전거타기 무료교육 등 지속사업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주민들의 근거리 교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자전거도로 미개설로 인해 단절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경제청에 조속한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송도관리단 749-8285

송도2동

송도2동 주민자치회, 착한계단 이용자 기부금 전달

송도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월 7일 '착한계단 이용자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금 211,680원을 전달했다. 착한계단은 송도2동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으로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내 계단에 주민공모로 선정된 건강문구를 붙이고 1층에서 5층까지 계단 이용자 수만큼 10원씩 적립되는 자동 카운터 센서를 부착하여 연간 누적 이용자 수만큼의 수익금을 기부한다.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착한계단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계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다.



문의 ☎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749-6550

옥련1동

옥련1동 박해경 주민자치위원, 설맞이 이웃사랑 펼쳐

옥련1동 주민자치회 소속 박해경 위원이 지난 1월 16일,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내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 전해 달라며 김 30박스 및 사골육수 30봉을 기탁했다. 기탁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지원에 활용됐다. 주민자치회 박해경 위원은 매년 밀반찬과 다양한 부식지원 등 물품 기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박해경 위원은 "저소득 주민들과 독거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설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명절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박해경 위원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부받은 물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문의 ☎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49-6044

옥련2동

평강의 교회, '사랑의 이불' 전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월 15일 평강의 교회(연수구 옥련동 소재)가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및 동절기 취약계층에게 전해 달라며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 겨울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평강의 교회는 해마다 명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이웃에게 소외된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후원 물품을 꾸준히 지원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불우이웃에게는 쌀과 생필품 등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겨울 이불 50채는 추위가 매서워지는 요즘 동절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임효순 목사는 "주위의 어려운 우리 이웃이 교인들의 정성이 담긴 이불을 받고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749-6050

구청소식

연수구, 인천 최초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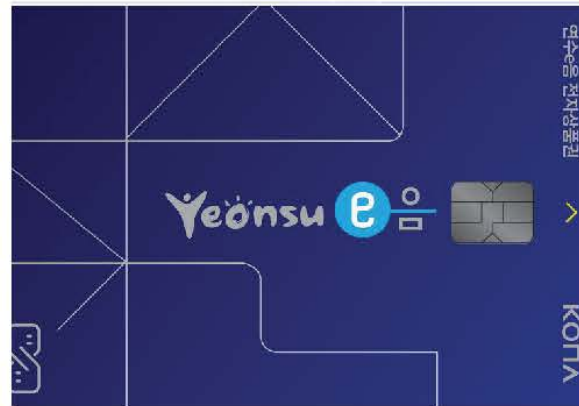
연수구가 1월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 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이다. 구는 2019년 연수2동과 송도2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동으로 선정하고 주민공론장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총 11회의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총 550여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발대식은 구립 관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확대·전환을 위한 추진경과보고 △전임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 증정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 △주민자치회 위원 우리의 다짐 낭독 △캘리그라피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동별 워크숍을 통한 화합 도모, 임원진 구성, 운영세칙을 수립하고, 분과 구성을 위한 주민 모집과 주민 의견수렴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구는 인천 최초로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실현한 만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 마을자치과 749-7212

연수E음 시즌2, 영세소상공인 혜택 중심으로 전환



연수구는 인천시의 내년도 인천E음 사용자 캐시백 조정과 연계한 연수E음의 캐시백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1월 1일부터 연수E음 캐시백 비율이 30만원까지 5%, 30~50만원 구간 3%, 50~100만원 구간은 1% 적용됐다. 구는 그동안 연수E음의 사용자층 확보를 통한 플랫폼 기반 형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던 사용자 혜택 중심에서 벗어나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혜택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혜택플러스 사업을 본격 런칭할 예정이며, 연수E음 앱을 활용한 기부, 클라우드 펀딩, 연수E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문의 ☎ 경제지원과 749-7792

연수구, 인천 최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일명 '대포킬러'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동계도전화 발신을 통해 해당 불법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을 무력화시켜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많은 데 대하여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도시계획과 749-8644



의정소식



연수구의회, 부산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구의회는 지난 12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섰다.

이번 시찰에는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한국도시재생학회 도시재생전략포럼 세미나' 참석을 시작으로, 부산 서구청을 방문하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아미·초장동 산복마을(서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흰여울문화마을(영도구) 등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답사하였다. 김성해 의장은 "이번 비교시찰은 청학동 안골마을 등 우리 구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면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구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모델 발굴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 「문화사랑방」 운영(의회건물 1층)

운영시간 09:00 ~ 17:00(평일)

이용대상 연수구민 누구나

운영내용 - 법령집 및 의정활동 관련 자료 비치
-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잡지책 및 정기간행물, 각종 도서 비치
- 안락한 소파형 의자와 탁상을 구비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담소공간 제공

문의 ☎ 의회사무국 문화사랑방 749-6764



연수구의회, '의정동우회 간담회' 개최

연수구의회는 지난 1월 9일 새해를 맞아 전직 구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현직 의원 2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연수구의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현안사항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직 의원들은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직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의정동우회는 구민의 행복과 연수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해 의장은 "그동안 연수구의회와 연수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의회방청 및 견학신청

개인신청 방청 및 견학 전일까지 전화신청

단체신청 방청 및 견학 7일 전까지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절차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 수령·패용 후 방청

문의 ☎ 의회사무국 749-8374

※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게시판



복지 welfare



2020년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기간 2월 ~ 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조손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4) 쪽방생활자
5) 한부모가정

사업내용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

세탁품목	제외사항
이불(일반, 극세사, 오리털), 겨울담요, 매트리스커버, 방파점퍼(솜, 누빔), 방한바지, 다운점퍼, 커튼 등	집에서 세탁 가능한 품목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직접 세탁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예시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세탁서비스)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문의 ☎ 복지정책과 749-7667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 참여방법 - 소리함 '이웃사촌'에 어려운 사연 알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외 8곳)
- 온라인 신고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
동민의 소리 → 소리함 이웃사촌
- 복지로 이용 : 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신고센터 → 복지로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연수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연수희망지기'를 모집합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복지위기가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자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명예직·무보수 활동가

'연수희망지기(연수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① 위기상황이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
②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방문조사·모니터링 등에 함께 참여
③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위기가구 제보가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①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실시
②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
③ 개인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통합사례관리 : 복지·보건·주거·고용·신용·법률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
- 신청기준 연수구 주민 '누구나' 활동 가능하며 활동을 신청하신 분은 모두 연수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됩니다.
특히 정리·수납, 가족상담, 심리상담, 그림책교육지도,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등 활동 가능한 자격·특기가 있으신 분께서는 더욱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749-7674

여름철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사설 무상 설치

사업기간 2020년 4월 ~ 6월(가정 방문 설치)

신청기간 현재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예정

사업대상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되는 관내 지하·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시설 유형 ① 역류방지밸브

대상 : 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싱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또는 지하상가

규격 : 설치 전 방문하여 배수설비 규격별 설치

② 차수판(물막이판)

대상 :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

규격 : 높이 40~80cm의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단, 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접 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안전관리과(032-749-8862)

신청방법 신청서 및 건물주동의서 작성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팩스로 송부(032-749-8849)

※ 팩스 송부시 반드시 확인 연락 바랍니다.(032-749-8862)

문의 ☎ 안전관리과 749-8862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지원사업 시행

최근,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는 안전취약계층 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를 설치·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2월 1일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대상 안전취약계층 300가구(선착순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노인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 이탈주민 세대, 다문화 가족, 고려인 세대 등

지원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진 시 접수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안전관리과 749-8852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0년 2월 1일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자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지원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전관리과 749-8852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모듬활동 모집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신청기준 소득, 재산, 금융 3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지원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Savior 연수 Mom's
모집기간	2020년 2월~	
모집기간	연수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24개월~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모집기간	모듬을 구성하여 부모-자녀가 함께 월 1회 활동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아이권리존중 활동

※ 센터 운영에 따라 내용 변경은 가능하며, 자세한 세부 일정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문의 ☎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715-8262(내선 5번)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신청기준 소득, 재산, 금융 3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지원

-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천원)	1,493	2,543	3,289	4,036	4,783	5,530	6,281

- 재산 : 1억 8,800만원 이하

- 금융 : 1,000만원 이하

※ 위 내용은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상향조정될 예정

문의 ☎ 복지정책과 749-7673

행정 administration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약 22,866개)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대상기간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조사기간 2020년 2월 12일 ~ 3월 9일(기간 중 25일)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조사항목 사업체명 등 11개 항목

※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등

제1회 연수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대 상 직원 채용계획 있는 기업체, 구직자

장 소 대회의실(연수구청 3층)

일 시 2020년 2월 19일(수) 오후2시 ~ 4시

내 용 구인·구직자간 실시간 면접 실시 및 채용

문의 ☎ 취업정보센터 749-8473~5

올 겨울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분위기 활성화

제설 책임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제설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 범위 - 보도의 경우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시설물의 지붕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 749-8861~4



2020 연수구 「주민마을방송팀」 모집

연수구에서는 연수구민의 자발적인 미디어 참여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마을방송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 모집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예정)
- 모집대상** 마을방송(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모임(단체) 7팀(팀별 5인 이상)
- 활동기간** 2020년 3월 ~ 12월
- 지원분야** 마을영상, 마을팟캐스트
- 지원내용** - 주민마을방송팀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 마을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멘토링 지원
- 지원방법** 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hoon5534@korea.kr) 접수
- 문의** ☎ 마을자치과 032-749-7233

1인 마을미디어활동가 「연수리포터」 2기 모집

연수구에서는 연수구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소식제공을 위한 1인 마을미디어 활동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인 마을미디어활동가 「연수리포터」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 모집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예정)
- 모집대상** 영상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연수구 주민(15명 이내)
- 활동기간** 2020년 3월 ~ 11월
- 지원내용** - 콘텐츠창작을 위한 제작비 지원
- 전문멘토링 지원(상시) 및 미디어 전문교육 실시(4회)
- 워크숍 개최 및 연수리포터 증 발급
- 지원방법** 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romanti@korea.kr) 접수
- 문의** ☎ 마을자치과 032-749-7234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출결서비스 실시

- 운영기간** 2020년 1월 ~ 12월
- 운영교육**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사이버교육) 등
- 이용대상** 연수구 소속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25,000여 명
- 신청방법** 민방위 전자통지센터 웹사이트(ptongji.or.kr)에 접속하여 사전 동의 신청
- 운영절차** 온라인(웹)을 통해 대원 등의 수집 → 통지서 관련 알림톡 안내 → 전자통지센터 접속 → 본인인증 후 전자통지서 수령
- ※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서비스는 반드시 민방위 대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 대상** 연수2동 관내 주민
- 장소**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00 ~ 13:00
- 상담사항** 임금체불, 영세사업자, 산업재해, 인권침해
- 협력** 노무법인 한길 인천지사 노무사 이성옥
- 문의** ☎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749-6242

문화 culture



2020년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교육생 모집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봉사단 육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연수구자원봉사센터2층 교육장
- 교육인원** 10명 내외
- 교육비** 무료(재료비 별도)
- 접수기간** 2020년 2월 28일 18시

- ① **손,발맞사지 전문 봉사단 교육**
교육기간 2020년 3월 ~ 5월(12회)
교육일시 2020년 3월 9일부터 매주 월(10:00 ~ 12:00)

- ② **수어기초 전문봉사단 교육**
교육기간 2020년 3월 ~ 6월(16회)
교육일시 2020년 3월 4일부터 매주 수(10:00~12:00)

- ③ **캘리그래피 전문 봉사단 교육**
교육기간 2020년 3월 ~ 5월(12회)
교육일시 2020년 3월 5일부터 매주 목(10:00~12:00)

- ④ **캐리커처 전문 봉사단 교육**
교육기간 2020년 3월 ~ 5월(12회)
교육일시 2020년 3월 5일부터 매주 목(14:00~16:00)

※ 접수 및 문의처 : 연수구 자원봉사 센터 ☎ 833-1365
※ 전문봉사단 교육 후 수요처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02
February

1st Yeonsu-gu Job Fair

- Date** 14:00 - 16:00, February 19, 2020 (Wednesday)
- Venue** Meeting room(3rd floor, Yeonsu-gu Office)
- Participants** Employees, recruitment companies, job seekers
- Description** Real-time interviews and hiring between job seekers and employers
- What to prepare** Attendance at the event day(with resume)
- Inquiries** Yeonsu-gu Employment Information Center 749-8473 ~ 5, Fax 749-8479 (Address: 1F, Yeonsu-gu Office, 115, Woninjae-ro, Yeonsu-gu)



Day of Culture, “Lunch Concert”

- Date** 12:30 - 13:00, February 26, 2020 (Wednesday)
- Venue** Songjukwon(1F, Yeonsu-gu Office)
- Performance Contents** Pop, Jazz, Popular Music, Movie OST, etc.
- Host / Organizer** Culture and Sports Division of Yeonsu-gu Office 749-7293
- ※ The date, time, and venue of the performance are subject to change by the organizer.

Dreaming of becoming one ‘Hambak-Biryu Library’ along with books

- Venue** 217, Hambakan-ro, Yeonsu-gu, Incheon(Hambak Village Cultural Welfare Center)
- Opening Hours** Temporary Operation from Tuesday, February 4, 2020 09:00 - 18:00 (Closed on Mondays and Public Holidays)
- Contents** The HambakBiryu Library, which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cultural services to the HambakBiryu Village and dreams of “becoming one with books”, is finally opening its doors. From February 4 (Tue), reading books is available for one month of temporary operation. Please check the Yeonsu Public Library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chedule.



“Free Installation of Flood Prevention Facilities” for Underground Housing in the Summer

- Participants** Residents in buildings, underground- or semi-underground housi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etc. with sewage with water flowing backward during heavy rains
- Period** April – June 2020 (Installation is provided with home visits.)

Types of Flooding Prevention Facilities

- ① **Non-return Valves**
- Eligible Participants Residents living in underground houses, or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where sewage flows back into the drainage facilities in the house (bathrooms, balconies, and sinks).
- Size: Visits will be made to estimate the drainage system for appropriate valves before installing.

- Application Period** First-come-first-served to the extent that budget allows.
- Where to apply**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r Safety Management Division of Yeonsu-gu Office
- How to apply** After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nd agreement with the building owner, visi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o submit the form or send by fax(032-749-8849).
※ Please call to confirm receipt when applying by fax.
- Inquiries** Safety Management Division of Yeonsu-gu Office 032-749-8862

연수구의 겨울은 신난다

글, 사진 도현수 연수한마당 기자



문화공원, 미추홀공원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



올겨울 연수구는 시민의 건강, 정서 생활, 가족 나들이를 책임지던 문화공원(새말로 120)과 미추홀공원(해송로 59)을 겨울에만 운영하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주민들은 2,000원으로 장비(스케이트, 헬멧, 무릎 보호대)를 대여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평일 오후 8시, 토·일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2월 17일까지 운영된다.

야외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기 전에는 꼭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1시간 동안 스케이트 후 30분 휴식 및 빙질 관리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또,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인터넷 접수(네이버 예약)를 해야 한다.

스케이트장은 공원 주변 음악 소리를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케이트장 옆에는 개장 기간에만 운영하는 매표소, 운영실, 매점, 휴게실 등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문화공원에는 스케이트장 1면이 설치되어 있고 미추홀공원은 스케이트장과 전통 썰매장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은 곳곳마다 친구, 가족, 연인 등 스케이트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앞쪽에서는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옆에서는 신발과 헬멧을 대여하고, 그 옆에서는 아기용품을 빌리기 위해 차례를 기다린다. 스케이트장은 안전을 위해 보호대 착용 후 입장이

가능하다. 음악으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스케이트장에서는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가도 어느새 엉덩방아를 찧고 절절매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안전요원이 엉킨 동선을 정리해주면 그 동선을 따라 길이 생기고 서로 양보하며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보는 사람도 타는 사람만큼 신나고 즐겁기는 마찬가지이다. 문화공원 스케이트장은 친구들끼리 많이 찾는 곳이다. 악어, 호랑이, 공룡, 캐릭터 옷을 입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스케이트를 탄다. 처음 스케이트를 타본다는 민우(6), 민준(7)은 엄마 손을 잡자 몸 따로 마음 따로다. 그래도 마냥 즐겁다. 동네 어르신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구경한다. 미추홀공원은 오후 내내 따스한 햇살이 비친다. 문화공원보다는 임시 편의시설이 넓은 편이다. 썰매장은 꼬마들이 더 많았다. 추억의 전통썰매는 아빠들이 더 신났고 그 뒤를 쫓는 아이들은 숨이 차도록 따라다닌다. 이곳을 찾은 송도 1동 김경희(40) 씨는 “개장 날, 크리스마스 날도 왔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찾아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 간다는 게 쉽지 않는데 가까운 곳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다.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고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 힐링과 추억을 선물해준 연수구의 겨울이 좋다.

Woninjae & Songdo Hanok Village in the City

written by Choi Yoo-jung, a reporter at Yeosu Hanmadang



Any scenery created with traditional Korean houses, hanoks, makes a great tourist attraction for many camera shots to cherish. The charms of the beautiful hanoks impress foreign tourists and leave lasting memories. Near the subway station in Yeosu-gu, there is a beautiful stretch of hanoks that communicates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A Site of History Embedded with the Traditions of Incheon Lee Clan [“Woninjae” at the Woninjae Subway Station]

From Exit 1 of Woninjae Station, within a three-minute walk, you will see a hanok main gate and tombstones. Woninjae is the place to guard the tomb site of Lee Heo-gyeom, founder of the Incheon Lee clan, and hold memorial services. It is known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early 1800s and has been designated as the fifth Incheon Cultural Property. Entering the hanok main gate, you can see five small buildings that were used as a study and bedrooms. There is a terrace-stone below each floor for removing shoes before entering, windows covered with paper over the frames, and a floored main hall of the house, all of which will guide you through Korean past.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yard, you can feel the majestic and simple beauty of hanoks. The spacious yard is also the venue for the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arranged by the Yeosu Cultural Center. Walking along the left side of the gate leads to the Road of Pilgrimage, and there is also a pond in the yard fenced with stones.

Enjoy food culture and walk through the past and future [“Songdo Hanok Village” at the Central Park subway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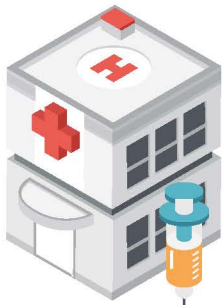
Songdo Hanok Village is creating a new food culture. In a village that embodies the atmosphere of hanok, you can enjoy various foods and coffee, as well as a walk. While walking from the Central Park Station to Hanok Village, you will see the unusual scenery of the harmony created by the hanok roofs and contemporary high-rise buildings.

The Songdo Hanok Village was established to convey the beautiful Korean atmosphere in downtown. You can truly feel the beauty of hanok from a coffee house in a hanok building with traditional-style lights, to the tile-roofed restaurant embracing a garden of trees and a pond.

Another must-see attraction of Songdo Hanok is Gyeongwonjae Ambassador Hotel, a hanok hotel located right next to the village. A lobby decorated with paintings in the theme of red plum blossoms and pine trees and guestrooms built in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Joseon Dynasty are special additions to the beau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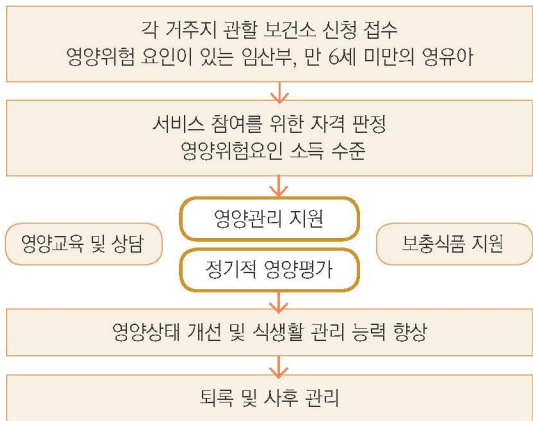
HEALTH CENTER NEWS

보건소
소식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종류]

- ①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전문가를 통한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 교육 지원
- ②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위험요인 및 영양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비만도
· 빈혈검사 : 해모글로빈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 식사조사
- ③ 보충식품 지원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6가지 종류로 구성, 보충식품 패키지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자격 기준]

- ① 대상분류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아·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 유아)
 - ② 거주기준
연수구 내 거주
 - ③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 ④ 영양위험요인 보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영양플러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① 영양플러스 대상자 자격 기준 및 모집 일정 확인
 - ② 모집 기간 내 보건소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자격 평가
 - ③ 사전 전화 예약
 - ④ 신청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전산조회 가능), 건강보험증(전산조회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산조회 가능),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07~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수구 거주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산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상한액(최대지원금)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산선배아	1~4회	11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부부 각각의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문 의 ☎ 건강증진과 749-8153

LIBRARY YARD

도서관
마당



연수청학도서관



일시 매주 (토) 15시 장소 지하 공연장
문의 ☎ 749-8270

- 전체 겨울왕국(한글자막)
2. 1.(토) / 애니메이션 / 108분
- 12세 에베레스트(한글자막)
2. 8.(토) / 모험 / 121분
- 전체 찰리와 초콜릿 공장(한글자막)
2. 15.(토) / 판타지 / 114분
- 전체 폴라익스프레스(한글자막)
2. 22.(토) / 애니메이션 / 100분
- 전체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한글자막)
2. 29.(토) / 모험 / 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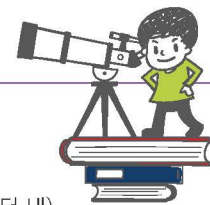
해돋이도서관



일시 매주 (토) 15시 장소 2층 해돋이홀
문의 ☎ 749-6950

- 12세 조선태평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우리말)
2. 1.(토) / 코미디 / 115분
- 15세 탐정리턴즈(우리말)
2. 8.(토) / 코미디 / 116분
- 전체 월레스의 그로밋 거대토끼의 저주(한글자막)
2. 15.(토) / 애니메이션 / 84분
- 12세 명탐정코난 제로의 집행인(우리말)
2. 22.(토) / 애니메이션 / 110분
- 전체 설록농즈(한글자막)
2. 29.(토) / 애니메이션 / 86분

책과 더불어 하나되기를 꿈꾸는 함박비류도서관 개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17(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내)
운영시간 2020. 2. 4.(화)부터 임시운영
09:00~18:00(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내 용 함박·비류마을에 다양한 정보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책과 더불어 하나되기를 꿈꾸는 함박비류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2월 4일(화)부터 약 한 달간의 임시운영 기간 동안은 도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추후 일정은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



일시 매주 (일) 15시 장소 3층 공연장
문의 ☎ 749-8200

- 전체 펭귄 파이프(한글자막)
2. 2.(일) / 애니메이션, 가족 / 55분
- 전체 투 프렌즈(우리말 녹음)
2. 9.(일) / 애니메이션, 가족 / 75분
- 전체 주토피아(우리말 녹음)
2. 16.(일) / 애니메이션, 가족 / 108분
- 전체 모아나(우리말 녹음)
2. 23.(일) / 애니메이션, 가족 / 107분
- ※ 2. 23.(일)은 14:50부터 약 30분간 클래식 공연 진행 후 이어서 영화상영이 시작됩니다.

선학별빛도서관



일시 매주 (일) 15시 장소 4층 천체투영관
문의 ☎ 749-6710

- 전체 토토의 움직이는 숲(우리말 녹음)
2. 2.(일) / 애니, 어드벤처 / 75분
- 12세 사도(우리말)
2. 9.(일) / 시대극 / 125분
- 전체 토이스토리3(우리말 녹음)
2. 16.(일) / 애니메이션 / 102분
- 12세 주만지:새로운 세계(한글자막)
2. 23.(일) / 액션, 어드벤처 / 118분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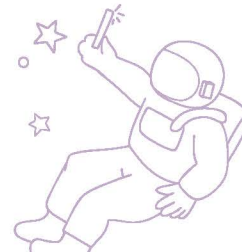


일시 매주 (일) 15시 장소 2층 공연장
문의 ☎ 749-8220

- 전체 물리 문의 놀라운 최면술 책 (영어/한글자막)
2. 2.(일) / 애니메이션 / 98분
- 전체 판타스틱 판다(영어/한글자막)
2. 9.(일) / 애니메이션 / 41분
- 전체 양말요정 후고의 대모험(우리말 녹음)
2. 16.(일) / 애니메이션 / 74분
- 전체 몬스터 랜드(프랑스/한글자막)
2. 23.(일) / 애니메이션 / 75분

선학별빛도서관(토요일별빛극장)

- 전체 From Earth to the Universe(우리말 녹음)
2월 1, 15, 29.(토) 14:00 / 천문, 우주 / 30분
- 전체 Seasonal Stargazing(우리말 녹음)
매주 (토) 14:30 / 천문, 별자리 / 15분
- 전체 생명의 빛 오로라(우리말)
2월 8, 22.(토) 14:00 / 천문, 대기 / 30분



① **김건우(남)** 2019. 3. 18.
아빠 김두현 + 엄마 박경은
무럭무럭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에
엄마, 아빠, 누나는 행복해 고마워
우리가족 사랑해요~♡♡♡

② **김하은(여)** 2019. 10. 23.
아빠 김최육 + 엄마 정은정
소중한 선물 우리 딸 김하은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③ **최우연(남)** 2019. 10. 6.
아빠 최진환 + 엄마 홍주연
2017년 신혼집을 연수구에 차린 후
아이까지 연수구에서 태어나게 되었네요.
전 연수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아이까지
연수구에서 함께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④ **최유진(여)** 2019. 10. 13.
아빠 최인광 + 엄마 유지숙
깁깁아 만나서 반가워♡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랑 즐겁게 깁깁 웃으며 지내자~

아기탄생방

#Yeonstagram



너무 귀여워요~
어땜...
아구구구~

아기탄생 기념 축하사진을 응모하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dustnsk@korea.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응모 방법
- + 신청대상 : 연수구에 출생등록 한 아기의 부모
- + 게재내용 : 아기사진, 아기이름, 성별, 생년월일, 부모이름
- + 문의 : ☎ 홍보미디어실 749-7402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지원금액 월 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시기 신청 월 익월 20일 (계좌입금)
문의 ☎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 749-7732

유모차 및 대형 장난감 소독기 설치장소 안내

선 학 동 선학별빛도서관
옥 련 동 옥련1동·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청 학 동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도서관, 연수구 보건소
연 수 동 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동 춘 동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수구청점, 동춘1동·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 어린이 도서관
송 도 동 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해돋이 도서관, 송도 국제어린이 도서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문 의 ☎ 출산보육과 749-7732

테마사진 :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

송도국제대로



좋아요 34개 댓글 27개
이해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소보루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컨벤시아대로



좋아요 45개 댓글 32개
홍성재 겨울엔 따뜻한 '호빵'이 최고죠~♡

원인재로



좋아요 48개 댓글 31개
정세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당근케이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당근케이크 맛집 탐방하며 매일매일 먹고싶어요! 당근케이크 속에서 해염치고 심네요^^

함박외로



좋아요 47개 댓글 24개
이하영 제가 좋아하는 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직접 구운 빵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스콘과 에그타르트, 썬파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네요!

독자참여안내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사진, 수필, 시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4월호 사진테마 : 연수구에서 누리는 문화생활

※ 연극부터 영화, 축제, 프로그램 등 연수구에서 즐겼던 문화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응모방법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연수한마당> 담당자 앞 ☎ 749-7402 또는 dustnsk@korea.kr

연수산책

겨울비

송행웅(새말로)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비

창가에 방울이 되어

옛날 추억 속의 그림들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

옷매무시 한껏 자랑하던

예쁜 단풍잎을 추적추적 적시며

화려했던 이야기가

옛 추억으로 숨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인생은 세월 속에 흘러갑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알처럼

씻기고 다듬으며 굴러서 구슬이 되듯

그렇게 인생도 참모습으로 바뀌어가며

이따금 잊힌 추억 속에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플 때도 있지

사랑이란 말로 슬픔을

잊을 수가 있을까.....?



CULTURE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전시회 ▶ Epic for persona - 2. 18.(화) ~ 2. 27.(목) - 10:00 ~ 18:00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문의 ☎ 899-1516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전시회 ▶ 제7회정기회원전 - 2. 18.(화) ~ 2. 27.(목) - 10:00 ~ 18:00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문의 ☎ 899-1516			1
2	3	4 일춘	5	6	7	8 장월대보름
		화요시네마(워낭소리) - 14:30 - G타워 문화동 2층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문의 ☎ 851-6650	노후준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안내 (1, 3, 5, 7차시) - 5, 12, 19, 26일(수) 14:00 ~ 16:00 -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다목적실(문화동 2층) - 선착순 25명(전화·방문 접수) 문의 ☎ 851-6650~1	2020 코베 베이비페어 - 2. 6.(목) ~ 2. 9.(일) - 10:00 ~ 18:00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 2홀 - 입장료 : 1만원 (사전등록 시 무료) 문의 ☎ 02-6121-6458	노후준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안내 (2, 4, 6, 8차시) - 7, 14, 21, 28일(금) 14:00 ~ 16:00 -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다목적실(문화동 2층) - 선착순 25명(전화·방문 접수) 문의 ☎ 851-6650~1	
9	10	11	12	13	14	15
		화요시네마(집으로) - 14:30 - G타워 문화동 2층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문의 ☎ 851-6650				
16	17	18	19 우수	20	21	22
		화요시네마 (공동경비구역 JSA) - 14:30 - G타워 문화동 2층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문의 ☎ 851-6650				퍼플카우 뮤직페스티벌 - 2. 22.(토) 10:00 ~ 17:00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 입장료 : 8만8천원 문의 ☎ 1544-3901
23	24	25	26	27	28	29
		화요시네마 (그대를 사랑합니다) - 14:30 - G타워 문화동 2층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문의 ☎ 851-6650	문화가 있는 날 '런치 콘서트' - 2. 26.(수) 12:30 ~ 13:00 - 송죽원(연수구청1층) - 팝, 재즈, 대중음악, 영화OST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 문의 ☎ 749-7293			보이스콘서트 - 2. 29.(토) - 14:00, 18:00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 입장료 :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문의 ☎ 02-6121-6458

• 〈연수헌마당〉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군대 간 자녀에게 보내실 경우 - 성명, 부대주소, 계급, 전역예정일자)

• 금요예술문화 소식은 예술팀 일정에 따라 공연내용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소식에 관한 문의는 각 처 홈페이지지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 749-7402 메일 dustnsk@korea.kr

연수구청 홈페이지 연수문화마당 홈페이지



2020년 02월호

독자 신문조사

〈연수한마당〉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구성소식지입니다. 평소, 연수한마당을 어떻게 보셨는지 등 〈연수한마당〉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메일 dustnsk@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은 15일까지입니다.)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주세요.

성별 : (남 / 여) 연령 : (세)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창문은 꼭 잠가라.
창문은 꼭 잠궜라.

‘잠가라(0)’
‘잠그다’는 어간 ‘잠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아서’가 붙으면 ‘잠가, 잠가서’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입니다.

2020년 01월호

독자생각



독자생각에 응모해 주세요

연수한마당 편집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을 보고 느낀 점과 이력,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ustnsk@korea.kr

01 〈연수한마당〉이 책지 형태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02 〈연수한마당〉가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03 〈연수한마당〉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4 〈EVENT〉이벤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05 〈연수한마당〉에 추가 또는 보강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여행 및 맛집 정보 ☐ 학생 대상 교육 정보 ☐ 일자리 관련 취업 정보

☐ 재테크 등 경제 정보 ☐ 시민 참여 및 이벤트 ☐ 기타()

06 〈연수한마당〉을 접한 후 연수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매우 좋아졌다 ☐ 대체로 좋아졌다 ☐ 특별한 변화가 없다

☐ 대체로 안 좋아졌다 ☐ 매우 안 좋아졌다

07 연수구와 〈연수한마당〉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철(하남대로)

‘밤 한 끼에 담은 희망’ 기사가 한 겨울임에도 파스함으로 다가오네요. 도시락 업체를 운영 하는 ‘김영복’ 사장님의 ‘나눔의 꿈을 이룸’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리라 여기며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본보기가 되어 주리라 확 신이 됩니다.



이창준(원인재로)

‘여기어때’ 정보는 겨울방학 때 자녀와 유 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 할 수 있는 도 서관 소개라서 좋았습니다. 겨울방학을 맞 아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 하고, 공연, 책, 전시회 등이 어우러져 아이 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최고의 힐링 공 간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 연수구에 참 많아서 행복합니다.



표영빈(인천타워대로)

‘연수공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소 겨울만 되면 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싶었는데 옮겨 울에 연수구에서 스케이팅장을 연다는 소 식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이용료와 운 영시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구민들에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